

# “말 안 통해도 봉사는 즐거워”

## 대구 대성사 무료급식소에 미군 30여 명 ‘배식조’ 나서



주한 미군들이 대성사가 마련한 급식소에서 배식을 하고 있다.

5월 12일, 대구 천태종 대성사주지직무 대행 보광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여는 무료 급식소에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미8군 소속 미군 30여 명이 ‘배식조’로 등장한 것.

한국음식을 만들 줄 모르니 주방에는 감히 들어갈 수 없고, 저마다 은색 쟁반 하나씩을 손에 들고 배식을 담당했다. 메뉴는 비빔밥과 콩나물국이다.

오전 11시, 어르신들이 몰려들자 미군들

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미군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급식소에 들어서자 말은 통하지 않지만 손짓과 발짓 눈치와 코치로 어르신들을 식당으로 안내하는가 하면 식탁에 부지런히 수저를 놓았다.

배식 창구 앞에선 고추장이 튀는 줄도 모르고 비빔밥 위에 고추장을 한 스푼씩 떠 놓기 바쁘다. 큰 키에 파란 노란 머리의 미군들이 동그런 쟁반에 비빔밥과 콩나물국을 잔뜩 얹어 나르는 모습이 어설피고

어색하지만 한국인에게 다가서려는 미소만큼은 밝고 정겹다.

이들의 마음이 전해진 걸까? 다소 의아한 모습으로 들어선 어르신들이 이내 웃음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희한한 일은 역시 희한한 일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공양을 하면서도 두리번두리번 큰 미군들 구경에 바빴다.

## 월 1회 봉사 통해 ‘어른공경’ 배워

## 사찰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추가 계획

하유복(84) 할아버지는 “미군들의 활동이 고맙고 친근함을 느끼게 한다”며 활짝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수고한다. 다음주에도 오길 바란다”며 미군들에게 말을 걸어 주변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하유복 할아버지는 영어교사 출신.

미8군 19지원사령부 참모장 리차드 헤치(Richard Hatch)의 부인 빅토리아 헤치(Victoria Hatch)는 “우리는 나이 드신 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며 “어른들을 위한 봉사는 꼭 필요한 일이며, 절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

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번에는 취재를 했지만 이번에는 봉사활동을 위해 참여했다는 미8군 기자는 “이런 훌륭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불자들에게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이곳에서 많은 보통의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어린 딸과 함께 나온 가족도 있다. 한국인 부인 김은실씨와 11세 딸 은비양과 함께 온 트래비스 스미스(Travis Smith)다. 부모님과 함께 온 은비양도 제물을 다하느라 분주했고, 13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다는 김은실씨는 공간에서 콩나물국을 퍼 담으며 “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재밌다”고 말했다.

대성사 주지권한대행 보광 스님은 “봉사

활동이라는 명목으로도 절에 온다면 자연스럽게 불법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미군들의 동참을 권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들이 불교를 더 알고갈 수 있도록 발우공양체험 등 불교문화체험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8군 19지원사령부 노원현 민사처장은 “미군들의 대성사 무료급식봉사활동은 지난 3월부터 매월 첫째 금요일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미군들의 호응이 좋아 이전 참여인원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이

김현조

대구경북포교사단 직장직능팀장



대구경북포교사단의 포교사 250여 명 중 경북 북부지역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는 20여명 남짓이다. 모두 직장직능 팀에 소속돼 있는데, 대부분 포교사가 대구에서 활동하다보니 포교사의 배출도 드물고 조직적인 활동은 더욱 어렵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대구경북 포교사단 직장직능팀에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경북 북부지역 포교사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진 것이다. 그리고 지난 11기 포교사 고시에서는 무려 10명의 구미지역 불자가 합격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또 지난 3월에는 최우수 포교팀으로 선정되어 포교원장까지 수상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주변’은 4년 전 팀을 맡아 변화를 이끈 직장직능팀장 김현조(48·해인심)포교사다.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 포교사에겐 포교사교육에 앞서 참가했던 해인사수련회가 더욱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마땅한 숙소가 없어 합판을 깔고 자야만 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열린 수련회였지만 오히려 삶에 대한 더 강한 물음을 던질 수 있었고, 절제와 인내 속에 성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인사수련회에서 계정해 삼학을 닦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는 김 포교사는 이후 2년간 서울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바르게 보고 들을 줄 아는 지혜를 배웠다.

해인사수련동문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포교사단 직장직능팀장을 맡으며 구미지역 포교활동에 눈을 돌리게 된 김 포교사는 “그냥 배운 대

## 공부방 운영 등 효과…최우수 포교팀 선정

## “바르게 살고 법 전하는 것 포교사가 할 일”

“4년 전만 해도 포교사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포교사들의 활동도 전무했지요.”

막대한 시절 팀장을 맡은 김현조 포교사는 ‘어떤 포교활동보다 시급한 것이 불법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불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포교의 대안을 ‘불교공부방’에서 찾았다. 구미지역 불자들이 불교를 제대로 몰라 행동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연 김 포교사가 구미불교대학에 불교공부방을 열고 스님을 초빙해 기초 경전강의 3개월 과정을 시작하자 불자들이 모여들었다. 김 포교사는 “포교사가 되어 함께 배우고 활동하고 싶다는 불자가 늘고, 후배포교사를 만들기 위한 선배포교사들의 3개월 특별과의 노력으로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다”며 빙긋 웃었다.

자그마한 체구에 생글생글 미소가 돋보이는 김현조 포교사는 어린이시절 할머니를 따라 해운사에 다니곤 했지만 미신을 믿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크면서 정신적 주체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할머니를 떠올리며 불교의 가치를 찾아 나섰고, 조계사에서 처음 실시하는 포교사교육에

로 살아왔을 뿐”이라고 말한다.

김 포교사는 “불법을 모르는 이들에게 부처님 법이 얼마나 좋은 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김 포교사는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가 전하라고 전법을 선언했듯이 법을 전하는 것, 그것이 포교사의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제 구미지역 포교사는 30명에 달한다. 4년 전 불교공부방에는 30여명의 불자가 모였지만 이젠 100명이 넘는 불자가 찾았다.

김현조 포교사는 이제 다시 새로운 길을 걸으려 한다. 지금까지 경전공부방만 계속해왔으니 마음을 살피는 뜻에서 명상요가를 시작했고, 경북포교사단 창립이라는 새로운 꿈도 꾀한다. 대구 경북이 다른 대구경북포교사단으로 묶여 있다보니 경북지역 포교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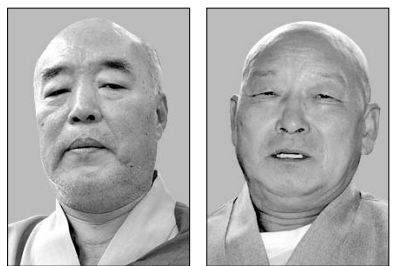
배지선 기자

##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 대구 경북 종무원 ‘분구’

## 경목·법운 스님, 각각 종무원장에 선출



경목 스님

법운 스님

한국불교대교종 대구경북종무원이 최근 대구와 경북종무원장을 각각 선출함에 따라 대구와 경북종무원의 분구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의 분구작업은 대구경북지역이 넓고 회원사찰이 190여개가 넘어 원활한 종무원운영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몇 해 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사안으로 제13대 대구경북종무원장의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각 지역 대표스님 10명으로 구성된 대구와 경북종무원분구추진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최근 대구와 경북종무원장이 각각 선출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구종무원은 5월 16일 대구교구주지회 임연석회의에서 대구 건봉사 주지 경목 스님을 신임 대구종무원장으로, 산격동 법성사 정해 스님을 부원장으로 선출했고, 경북종무원은 4월 20일 전 대구경북종무원장 법운 스님을 종무원장으로 안동 유일사 민덕 스님을 부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배지선 기자

## 보육시설 어린이들

## 신라불교문화 체험

보육시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뜻있는 행사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주에서 펼쳐졌다.

서울, 여수, 김천, 경주의 보육시설 어린이 및 교사 70여명과 신한은행 자원봉사 동아리회원들은 경주남산·북사 등에서 신라의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프로그램 ‘친구야! 만나자! 서라벌에서...’를 함께 했다

배지선 기자

## 문경 봉암사 선방 낙성식

조계종 특별수도원인 경북 문경 봉암사는 연면적 170여 평 규모의 선방을 새롭게 건립하고 5월 12일 낙성식을 봉행했다.

낙성식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봉암사 선원장 정광, 주지 함현 스님과 이철우 경북 정무부지사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봉암사 선방은 2층 팔각지붕 형태로 건립됐다.

배지선 기자

# 발우보시가 불법선거운동?

## 문경불교계 경찰 수사에 반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문경지역 경찰

이 사찰에 대한 수사를 벌인데 대해 문경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문경불교사암 연합회 회장 탄공 스님과 회원사찰의 주지 스님, 문경불교대학생 등은 5월 18일 문경

불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사찰에서 스님들이 사용하는 발우 등 신성한 공양물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탄공 스님은 “오래 전부터 와(瓦)발우보시를 했는데 누군가 발우보시를 ‘부정행위’로 고발해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 〈화제의 신간 발간〉

### -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출간

##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출간

### - 책값 50만원 / 157페이지 삽입

## 건강을 원하든지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몸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는 천하제일의 민중 의술. 기적의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드립니다.

몸 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감작성,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이상자 등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전립선이 좋아진 분은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며 요실금이 좋아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니 남편 바람날 염려가 없는 신화 같은 기적의 치료법을 공개했다. 맥박 경락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몇 시간 실습 강의만 듣고 나면 천하제일의 명사가 될 수 있다. 정신 분열증, 전간(간질)병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 전 세계 의료인에게 이 책을 권유한다

이 책은 영문판, 일어판, 한문판으로 출간해서 전 인류 건강을 위하여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을 전수시키려 한다. 현대 의학계에서 포기한 임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체험 사례와 약 제조법을 공개했다.

※ 전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선단제조법과 은 용해법을 공개했다.  
※ 선단은 상기되는 열을 하단전에 모아주고 막힌 곳은 풀어주고 몸속의 독성을 중화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니 여자가 복용하면 순환제요, 남자가 복용하면 팍스 노인도 이십대로 회춘된다.

※ 은 용해수는 몸속의 세균 바이러스를 집식시켜주며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이 1개월 안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토피성 소양증, 무릎 관절염, 손마디 관절염이 3,4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 사상의학의 팔상 분류법과 체질에 이로운 식품, 해로운 식품, 성격, 적성, 체질따라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 이만하면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겠는가?

### ※ 천하제일의 명사가 되는 과정

- ① 천문을 열고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당신 몸에 충만할 때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이 떠나게 되니 몸이 거뜨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린다.
- ② 환신을 받아 인당이 열려야 당신의 마음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목적지에 발산한다.
- ③ 실습강의 1시간 듣고 나면 당신손으로 디스크 환자를 즉석에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사가 된다.

## 나는 정부당국에 물고 싶다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환자를 민중의술인이 회복시켰다면 상을 줄 것인가? 발을 쫓 것인가?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인가? 의료인을 위한 법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면 민중의술인에게 상은 주지 않더라도 활동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묵과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나는 천문과학의 의술앞에 공개 검증받고 싶습니다.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원 원장 김영생

### ■ 본원

- 주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화 : (041)741-4600 / 011-9803-4600

### ■ 서울 수련원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 010-3129-6278

### ■ 부산 수련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베르빌오피스텔 1821호
- 전화 : (051)803-5953 / 011-9803-4600